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의 운영 실태 및 가정교육과 학생의 인식

최민지* · 채정현** · 전미경***¹⁾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박사과정*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The status of 「Logic and Writ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 course and the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course

Choi, Min-Ji* · Chae, Jung-Hyun** · Jun, Mi-Kyung***¹⁾

*Doctorial Student,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Seou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scribe the operating status of 「Logic and Writ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HEE)」 course and the 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course. For this study, the syllabuses of 「Logic and Writing」 course in HE education department were reviewed. The survey method was used in this descriptive study. Respondents in this study were 116 students taking the 「Logic and Writ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 course. Questionnaires from the students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and off-line mai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the follows:

First, goals of the 「Logic and Writing in HE Education」 course were as the follows in order: to enhance writing skill about various subjects related to Home Economics; to foster HE teachers' professionalism through persuasive power logically; to foster writing skill logically; to prepare HE teacher recruitment exam; and to foster teaching skills to enhance students' writing. The student evaluation methods in the course were mainly attendance, examination, tasks, discussion and presentation, and class participation.

Second, degree of satisfaction of students taking the course was higher than average. The student respondents perceived that the course was helpful to improve their logical thinking and critical analytical skill, writing skill related to HE education and education, ability to express one's opinion clearly and exactly,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concept of logic and the structure and method of the essay,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E education, and ability to solve the problems specifically. However, they responded that it was difficult to practice writing, to discuss and debate frequently, to follow uncertain assessment criteria, and to present frequently. They wanted the instructor to give the feedback more frequently.

1) 교신저자: Jun, Mi Kyung, Dongguk University,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26, Pil-dong 3-ga, Chung-gu, Seoul, 100-715, Korea
Tel: 02-2260-3889, Fax: 02-2265-117, E-mail: mkjun@dongguk.edu

Key words: 가정과 논리 및 논술(logic and writ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 강의계획서(syllabus),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students' perception about the course), 가정교과(Home Economics)

I. 서론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대체로 교과 교육에 의해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성공 여부는 교사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Lyu, 2013). 따라서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교육력을 제고하여,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를 조직하고 2003년 참여 정부 국정과제로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개선’을 제시하였다. 이후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직 단체, 학부모, 시민단체 및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교원정책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질 높은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제시한 교원양성제도 개선의 3가지 목표는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교원양성체제의 효율성, 교원선발제도의 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교원양성과정의 질적 수월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전공 및 교직관련 이수과목과 이수학점을 확대하였고, 둘째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성과 교직인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교육현장과 양성기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에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을 신설하여 각 교원양성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은 교과별 특성에 부합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교육현안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미경, 김갑성, 류성창, 김병찬, 박상완, 문찬수, 2010; Lyu, 2013). 신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을 아는

것에 중점을 두어 온 지금까지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 즉 학습자 스스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에게 매우 낮은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은 우리에게 익숙한 ‘글쓰기’라는 개념으로 대변되었다(Lyu, 2013).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학에서의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은 관련 지식과 교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강의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Lyu, 2013; Shin, 2009).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교원양성기관에서 운영되는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은 글을 쓰는 연습을 통해 논술문(1차 교육학 논술 준비)을 작성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Lee, 2011; Lyu, 2013; Shin, 2009).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정보의 양이 무한한 현대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자신의 전공 지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지식을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을 통해 재학생들이 길러야 할 능력은 비단 교과의 지식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글을 잘 쓰는 능력만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등이다.

하지만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이 현장에서 어떠한 능력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가르치고 있는지 조사한 연구는 전혀 드물다. Lyu(2013)와 Shin(2009)은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논리 및 논술’ 교과의 정체성 및 교육목표와 내용 구성 등에 관한 기초 연구라고 하였다. 교과의 정체성이나 교육 목표, 그리고 내용 구성을 문서에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강의계획서이다. 따라서 강의개요, 목표, 강의진행 및 평가 방법, 교재 및 과제 등에 대한 기초 정보를 포괄하는 문서인 ‘강의계획서’를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강의계획서(syllabus)는 17세기 후반에는 교수요목을 의미

하는 ‘내용의 목차(table of contents)’, 19세기 후반에는 ‘강좌의 개요(outline)’,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학습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더욱 구체화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Parkes & Harris, 2002, Jung, 2007 재인용). 이러한 강의계획서는 교수자가 수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고, 학습자에게는 학습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문서화된 의사소통 매체이다(Jung, 2007).

가정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의, 식, 주, 아동, 가족, 소비, 진로 등 각 분야의 지식 및 주제들은 우리 삶의 항구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과 재학생들에게는 전공 지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력 배양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논리적 사고력을 목표로 하는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이 각 대학 가정교육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교과목을 수강한 가정교육과 재학생들이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교과목 강의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 정도 및 어려운 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사범대학의 가정교육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관련 교과목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 과목을 수강한 가정교육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관련 교과목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 교과목의 개선 방향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의 교육목표, 교육방법, 학습평가, 교육내용 등의 보다 더 효과적인 운영 방식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관련 교과목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강의목표, 내용, 학습평가방법, 과제, 교재는 무엇인가?

둘째,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관련 교과목에 대한 가정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수강생의 인식(만족도, 도움이 된 점, 어려운 점)은 어떠한가?

II. 문헌 고찰

1.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 개발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공포한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력 제고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사양성 교육과정(교과교육영역)의 최소기준을 4학점(2교과목)이상에서 8학점(3교과목)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핵심인 교과교육영역에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을 새롭게 개설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과교육영역은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교과의 지식을 교육에 적합한 형태로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역점을 둔다(정미경 외, 2010). 교과교육영역에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이하 논리 및 논술)’을 새롭게 개설하여 학생들이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을 바탕으로 교과 지식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정미경 외, 2010).

이듬해인 2007년 10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그동안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용시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요 개선안을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이인제, 조현주 외, 2008). 이에 따라 2009 학년도부터는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었다. 1차에서는 교육학 및 전공 선택형 필기시험을, 2차에서는 전공 논술형 필기시험을, 3차에서는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중 2차와 3차 시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과 수업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교사가 선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특히 2차 논술형 필기시험은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라 체육과(Lee, 2011; Lyu, 2013), 중국어과(Lim, 2011), 산업 교과(Shin, 2009)에서는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강의운영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Lee(2011)는 체육교과 논리 및 논술교육의 쟁점과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3개 대학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체육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배양하고 표현력을 신장하기 위해 필요하여 이를 위해 논술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토론 게임, 비판적 읽기, 글쓰기 등 학생들의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강의 운영 방법이 요구되며, 논술과 논리교육이 가능한 전공자가 교과목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Lyu(2013)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원에게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 각 대학에 개설된 전공 교과 논술 교과목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보고, 액션리서치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Lyu(2013)는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들에게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에서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이 개설 및 운영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히고, '생각 깨우며 말하기', '서로의 생각 공유하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에서 글로 풀어내는 글쓰기', '타인과 함께 계획하고 구성하는 그룹 발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활동과 과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Lim(2011)은 중국어 교과 논리 및 논술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중국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 능력 즉 전인적 교육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Lim(2011)은 몇 가지 구체적 사례만을 제시할 뿐, 학습효과를 명료화시키지 못하였고 표준화된 강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Shin(2009)은 교과교육영역 개편에 따라 신설된 산업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의 교육목표와 내용설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교육과정 편람과 교육부의 교원양성검정 실무편람을 분석하고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산업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이 전공지식과 기술 및 태도에 관한 표현력, 자신의 진로에 관한 분석력, 교과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력 등을 목표로 해야 하며, 창의적 사고와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중심으로 교과내용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논리 및 논술 교육' 관련 교과목에 대한 연구에서 교과목의 목표를 논리적·비판적·분석적·창의적 사고력 등 종합적 사고력 향상에 두고 있다. 이는 어느

특정한 방법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와 논술 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수자의 교과목 담당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획일적인 글쓰기나 토론 수업 보다는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분위기를 반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교과목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성찰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논리적 글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00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에 개편된 시험체제에 따라 가정과 교사의 자격기준안 개발 연구를 수탁하였는데, 연구의 핵심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전형 방법인 2차 전공 논술형 필기시험과 관계된 것이었다. 특히 2차 논술형 필기시험은 1차 시험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통합적 지식 구성능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지식에 대한 논리적 조직화나 구성 능력, 서로 다른 논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의 측정을 목적으로 제시하였다(이인제 외, 2008).

이를 바탕으로 이인제 외(2008)는 2차 논술형 필기시험 평가도구 개발에 적용할 5가지 대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출제될 문항의 내용은 포괄적이면서도 충분한 논리를 통해 풀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출제문항은 교과에 대한 내용학적 지식을 잘 알고, 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출제문항은 교과 내용에 대한 통합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해결하기에 용이한 문제이어야 한다. 넷째, 채점자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분석적 채점방법을 지향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본적인 논술형 문항의 특성(글의 전개나 구성, 내용, 표현, 분량 등)에 대한 채점요소 또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2차 논술형 필기시험의 문항출제 및 채점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원양성대학에서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관련 교과목 운영에 밑바탕이 되었다.

2008년 고시된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내용에 따르면, "교과교육영역에는 '교과교육론'을 포함하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및 연구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법론' 등의 교과교육영역 이수교과목을 교원양성 기관의 형편에 따라 개발 및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09). 특히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은 표시교과목별로나 계열별 혹은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8년 고시된 교과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도 역시 "표시교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원양성기관의 형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교과목에 한하여 계열별로 자율적으로 이수교과목을 지정하여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고시하였다(김홍섭, 오순문, 김운중, 김윤기, 오경자, 2008).

한편 전국 가정교육과에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은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2~3학점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매우 빠른 정보흐름 및 변화양상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기에, 교육부의 지침과 달리 대부분의 교원양성기관에서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을 '필수교과'로 편성 및 운영하고 있다.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은 단순히 교과목의 지식을 폭넓게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교과목의 지

식을 충분히 잘 알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육과에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 교과목을 수강한 가정교육과 재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밝혀 앞으로 교과목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강의계획서의 의미와 선행연구 고찰

강의계획서는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전반적 계획으로, 강의에 대한 기본정보를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유하는 의사소통의 매체이다(Yang, 2012). 즉 강의계획서는 교수자에게는 강의의 목적과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사전계획을 조망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게 하고, 학습자에게는 강의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여 강의를 선택하

Table 1. Contents and components of syllabus

Jung(2007)	
lecture	name
	time
	place
	day
	credit
	target
professor	name
	phone number
outline of lecture	
purpose, goal	
textbook & reference	
assignments	
Class schedule & contents	
method	
evaluation method	
note	

Yang(2012)		
basic information	lecture	name
		target
		credit/time number
		category
		code
		day, class room
		prerequisite subject
	professor	name
phone number		
professor room		
e-mail/hompage		
education activities	goal	meeting time & day
		outline
	contents	goal
		schedule
	method	contents
		teaching method
		equipment
	evaluation	textbook & reference
		method
		assignments
exam guide		
lecture rule	attendance & absence	
	note	

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이성호, 1987).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대학 차원에서 표준화된 양식의 강의계획서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Jung, 2007).

강의계획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는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타당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Jung, 2007). Jung(2007)과 Yang(2012)이 수집한 강의계획서 분석을 토대로 강의계획서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Jung(2007)은 강좌 기본정보(교과목명, 강의시간, 장소, 요일, 학점수, 수강대상), 교수자 기본정보(교수자명, 교수자번호), 강좌개요, 수업목적 및 목표, 교재 및 참고문헌, 과제, 수업일정 및 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및 비율,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Yang(2012)도 강의계획서 준거틀을 마련하였으나 Jung(2007)과 달리 분류 항목을 보다 유목화하여 제시하였다.

강의계획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Jung(2007)은 대학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중 8곳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고, '수업계획서에 대한 의견 조사지'를 개발하여 3개 대학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강의계획서의 필수 구성요소는 강의와 교수자에 대한 기본정보, 교재 및 참고문헌, 수업일정 및 내용 그리고 평가방법이었다. 학생들의 경우 수업일정 및 내용을 주로 참고하는 반면, 교수자는 강의계획서에 제시한 일정 및 내용을 대체로 따르지 않아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계획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Yang(2012)은 미용관련 대학에 개설된 샴푸교과목의 수업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미용관련 2년제 대학 6곳의 강의계획서를 수집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교수자들은 대체로 강의계획서 표준양식에 제시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일부 주요 구성요소를 누락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Yang(2012)은 강의계획서의 영역을 기본정보, 교육활동, 강의규정으로 제한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Lee(2008)는 전국 초등예비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공학' 교과목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 교육대학교 2008년 1학기 '교육공학'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강의계획서와 실제 강

의운영에 있어 발생한 차이점을 보완하였다. 그 결과, 강의계획서와 실제 강의운영의 일치도는 매우 높아 강의계획서의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실제 강의 내용과 시간, 강의방법, 평가 등은 대학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에 Lee(2008)는 내실 있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강의가 운영될 수 있는 표준교육과정, 표준강의안, 표준교재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강의계획서는 수업에 대한 종합 안내서이자, 학습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문서화된 의사소통 매체로(Jung, 2007), 강의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전국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의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과 관련된 강의계획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강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관련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분석과 이 교과목을 수강한 가정교육과 재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 강의계획서

본 연구를 위해 수집 및 사용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관련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는 전국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서 본 교과목을 처음 운영 및 개설되기 시작한 2009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총 11학기 동안의 것을 의미한다.

강의계획서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의 13개 가정교육과 홈페이지에 탑재된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였다. 강의계획서가 온라인상에 탑재되어 있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강의계획서 열람을 요청하는 협

Table 2. The status of 「Logic and Writ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 syllabuses

Contents		the number of University	Contents		N(%)
area	Seoul	2	opening year	post 2013	14(52)
	Gangwon	2		2012	6(22)
	Chungcheong	1		pre 2011	7(26)
	Gyeongsang	3	type of instructor	professor	8(30)
	Jeonla	3		a part time instructor	19(70)

조문을 학과 사무실로 보내 담당교원의 허락 하에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13개 가정교육과 중 자료수집 기간 동안 담당교원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열람 공개를 꺼린 2개의 대학을 제외하고 11개 대학(서울권 2개교, 강원권 2개교, 충청권 1개교, 경상권 3개교, 전라권 3개교)에서 총 27개의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의 강의계획서가 14개, 2012년 6개, 2011년 이전이 7개이다. 전임교원에 의한 강의는 8개이고, 시간강사에 의한 강의는 19개였다(Table 2 참조). 수집된 강의계획서는 내용분석법에 의해서 분석되었다.

(2)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들의 인식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전국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이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이다. 본 설문을 진행한 학교는 강의계획서를 수합한 대학 중 경상권 1개교, 전

라권 2개교를 제외한 서울권 2개교, 강원권 1개교, 충청권 1개교, 경상권 2개교, 전라권 2개교로, 총 8개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이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으로 제한하여 편의 표집하였다.

설문으로 이루어진 이 연구는 본 조사에 앞서 2014년 8월 13일 ~ 8월 30일까지 서울 소재 가정교육과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9월 1일 ~ 9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총 116부를 회수하여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에서 보듯이, 대부분은 여학생(103명, 88.8%)이고 남학생은 13명(11.2%)에 불과하였다. 이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4학년(70명, 60.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학년(30명, 25.9%), 졸업하지 않고 1년을 더 공부하는 학생(10명, 8.6%), 2학년(5명, 4.3%), 그리고 1학년(1명, 0.9%) 순이었다.

수강생들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가정과 교사 임용(41.4%),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ontents		N (%)
Gender	Male	13(11.2)
	Female	103(88.8)
Grade	1st	1(0.9)
	2nd	5(4.3)
	3rd	30(25.9)
	4th	70(60.3)
	5th and up	10(8.6)
Job or Career after graduation	HE education teacher	50(43.1)
	Other subject Teacher	13(11.2)
	Job related to HE education	7(6.0)
	Job related to education	7(6.0)
	Job unrelated to major	23(19.8)
	Go to graduate school or Studying abroad	5(4.3)
	Others	11(9.5)
Total		116(29.8)

타과 교사 임용(19.8%), 전공과 무관한 직업(15.4%), 가정교육 관련 직업(7.2%), 교육관련 직업(6.7%),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유학(3.3%)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밖에 기타(6.2%) 의견에는 고민 중, 미정, 공무원, 워킹홀리데이가 있었다.

2.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1)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 강의계획서

전국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서 2009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개설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관련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분석은 내용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의계획서는 각 대학과 교원에 따라 그 양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대개 교원소개, 교과목명, 강의목표(개요), 강의내용, 학습평가방법, 과제, 교재로 구성되었기에 이를 분석준거로 삼아 빈도를 산출하였다. 이때 <Table 4>와 같이, 강사 유형, 교과목 명칭, 교과목의 목표, 내용, 평가방법, 과제, 교재에 대한 분석 기준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2)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들의 인식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을 수강한 가정교육과 재학생들의 이 교과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의 문항은 설문지의 형태로, 본 연구를 위해서 수집된 강의계획서 27개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 내용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정교육과 교과교육 전공 교수 1인과 내용학 전공 교수 1인으로부터 설문 문

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조사한 후 설문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문항과 응답이 곤란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높였다.

설문지 내용은 크게 개인적 사항(6), 「가정과 논리 및 논술」교과목의 강의 만족도(6), 만족 또는 불만족 이유(1), 강의 전반(목표(6), 방법(5), 평가(6), 과제(5), 내용(6))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강의에서 도움이 된 점(7)과 어려운 점(7)의 내용(총 53)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사항(선다형 문항)과 강의만족 또는 불만족 이유(자유개방식 문항)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문항은 중심화 경향을 피하기 위하여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을 활용하였으며, 빈도, 평균, 표준편차, t-test를 실시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 강의계획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은 관련 지식과 교재가 부재하고 목표만 제시되어 있어 강의운영에 많은 의문과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 개설 및 운영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여 이 교과에 대한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집한 27개의 「가정과 논리 및 논

Table 4. Analysis criteria of the syllabus

analysis criteria	component areas
instructor's type	· Who handled the lecture?
name of the course	· What's the name of the course?
goals(outline) of the course	· What's the lecture's goals?
contents of the course	· How's the contents of lecture organized?
evaluation methods	· how did assess the achievement of the students?
assignments	· What tasks were given to students?
textbooks	· Which books were used in the lectures?

술」 강의계획서는 전개양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의 구성은 대동소이하였다. 여기에서는 교원 및 교과목명, 강의 목표(개요), 강의내용, 학습평가방법, 과제,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원 및 교과목명

27개의 강의계획서 중 대학교 전입에 의한 강의는 8개(30%), 강사에 의한 강의는 19개(70%)였다. 또 전국 13개 대학의 교과목명을 살펴본 결과, 「가정교과(가정/가정과) 논리 및 논술」이 9개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맥락에서 「가정교육학 논술」이라 명명한 경우가 1개 이었다. 논술지도를 명시적으로 강조하여 「가정과 논리 및 논술지도(논술교육)」로 명명한 경우도 3개 있었다.

(2) 강의목표(개요)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강의계획서 전개는 대학별·교원별로 차이를 보여, ‘교과목 개요(강의개요)’만 있는 경우, ‘강의목표(수업목표)’만 있는 경우, 이 두 개가 모두 있는 경우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의개요 안에 강의목표가 있거나 반대로 강의목표에 교과목 개요를 간단히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여기에서는 이 둘을 함께 분석하였다.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의 강의개요 및 강의목표(수업목표)를 살펴보면 <Table 5>에서 보듯이, 가정교육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리적 서술 능력 함양, 논리적인 설득력 강화를 통한 가정교사의 전문성 향상, 논리적 글쓰기 함양, 임용고사 준비,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글쓰기를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의 5개 범주로 대별된다. 첫째 “가정교육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

한 논술”, “가정교육의 통합논술”, “가정교육 쟁점주제”에 대한 논리적 서술능력의 함양 등과 같이, 가정교과와 관련된 쟁점주제에 대한 논리적 글쓰기를 통해 강의개요를 설명한 경우가 20개로 가장 많았다. 다시 말해 담당 교원은 이 강의개요 및 목표를 ‘가정교과와 관련된 쟁점주제’에 대한 ‘논리적 글쓰기’에 두고 있었다.

둘째, 강의개요 및 목표를 ‘논리적인 설득력’ 강화를 통한 ‘가정교과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두는 경우가 16개 있었다. 예를 들면 가정교과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라고 한다가, 가정교과의 핵심내용과 문제를 “교육적 실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 “실천적 추론에 의한 문제해결”의 증진, “가정교육의 실천적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한 “논리적 사고, 논리적 행동 실천력”을 기르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강의개요를 설명하거나 목표를 두는 것은 가정교과의 특성을 살려 가정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셋째, 강의개요 및 목표를 ‘논리적 글쓰기’에 두는 경우가 10개 있었다. 이는 가정교과와 무관한 ‘논리적 글쓰기’를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 예를 들면, “비판적인 사고 방법을 익혀 논리적인 글쓰기 기초” 닦기,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논리학의 기본개념” 이나 “글쓰기의 보편적 원리” 이해, “논리적 사고력” 함양 및 “논술 능력”의 함양, “설득의 기술로써 논리학의 다양한 측면” 이해 등과 같다.

넷째,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강의개요나 주된 목표가 임용고사 준비에 있다고 한 경우가 6개 있었다. 즉 강의계획서 교과 특성에 이 교과가 “임용고사 준비에 도움을 주기위한 실제적인 교과목”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교과의 필요성과 임용고사에서 전공 논술형 필기시험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목표를

Table 5. Goal of the 「Logic and Writ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 course

Goal of the course	N
To Enhance writing skill about various subjects related to Home Economics	20
To Foster HE teachers' professionalism through persuasive power logically	16
To Foster writing skill logically	10
To Prepare HE teacher recruitment exam	6
To Foster teaching skills to enhance students' writing	4
Others	3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글쓰기를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목표를 둔 경우가 4개 있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비교사로서 장차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글을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중·고등학교에서의 ‘논술지도’ 등이 있다.

그 밖에 강의개요나 목표에 가정과 관련 논문 분석 및 토론을 다룬 경우가 2개, 셸프연구(self-study of teaching)를 다룬 경우가 1개 있었다.

(3) 강의내용

「가정과 논리 및 논술」의 강의내용은 15~16주의 주별 강의내용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가정교과 세부전공 중심의 글쓰기, 일반적인 글쓰기 기초, 가정과 임용고사 준비, 논리논술 관련 이론, 가정과 교육 관련 최근의 이슈, 중등학교 현장에서의 논술교육 및 논술지도 방안의 순으로 6개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 6개의 강의 내용의 범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7개의 강의계획서에서 21개의 강의가 가정교과 세부전공인 의, 식, 주, 아동·가족, 소비,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공별 글쓰기를 다루고 있었다. 교수가 제시한 세부전공별 자료나 학생 개인 혹은 조별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글을 쓰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였다.

둘째, 글쓰기 기초를 다루는 경우가 12개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바른 문장 쓰기, 주제설정과 논거제시, 논제분석 및 방법, 서론·본론·결론 쓰기, 보고서·제안서 등 형식에 따른 글쓰기, 논증 분석 및 평가, 연역·귀납논증, 오류논증, 시사문제나 쟁점적 글쓰기 등이 그 예이다.

셋째, 「가정과 논리 및 논술」의 강의내용이 주로 임용고사 준비로 구성된 경우가 4개였으며, 1주라도 임용고사준비가 강의내용에 포함된 경우는 12개였다. 임용고사준비는 세부영역별 객관식 문제출제 및 풀이, 교직문학분석, 전공문학분석, 출제경향 분석, 임용고사 면접문제 이해와 대비, 논술문제 출제와 채점기준 등으로 교과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넷째, 논리논술 관련 이론을 다룬 경우도 13개였는데, 예

를 들면 논리논술의 이론, 통합적 논술 등을 다루고 있었다.

다섯째, ‘비판적 사고’, 가정과 교육철학으로서의 ‘하버마스 이론’, ‘학교 폭력’, ‘다문화’, ‘저출산·고령화’, ‘안전한 먹거리’ 등과 같이 가정과 교육 관련 최근의 이슈를 다루는 경우가 6개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등학교 현장에서의 논술교육 및 논술지도 방안을 주별 강의내용에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가 5개 있었으며, 가정과 논술지도 방안, 가정과 논술평가의 실제 등이 그 예이다.

그 밖에 ‘행복의 조건’, 교수법, 셸프연구의 이론 및 티칭, 수업자료개발, 학습지도안 작성 및 시연, 교직원관련 이슈 글쓰기 등이 1개씩 있었다.

(4) 학습평가방법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강의의 학습평가방법은 세부 기준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개 출석(5~30%), 시험(0~60%), 과제(20~90%), 토론 및 발표(0~30%), 수업참여(0~30%)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강의계획서에는 1개의 교과목을 제외하고 26개의 강의계획서가 평가방법의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26개 중 2개를 제외한 24개의 교과목이 1~2회의 지필고사를 실시하였고, 무엇보다 ‘과제’에 대한 평가 비중이 매우 높아 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가 11개나 있었다.

(5) 과제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과제’ 영역은 과제란을 두어 제시하거나 주별내용에 제시하는 등의 차이로 인해 빈도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시간 이외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을 과제라고 정의 내린 후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과제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교과목의 과제는 모두 ‘글쓰기’였다. 다만 그 형식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세부전공(의, 식, 주, 소비, 아동·가족, 가정교과 등)별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쟁점별 글쓰기이다. 또 보고서 형식의 글쓰기 과제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논술보고서’, ‘프로젝트 제안서’, ‘시사문제조사 보고서’의 작성이 그것이다. ‘글쓰기’ 이외의 과제를 살펴보면, 해당 차시별 제시된 자료읽기,

학습주제와 관련된 자료준비, 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자료 개발, 교육학 개념정리, 자기소개서 작성 등이 있었다.

(6) 교재

이 연구를 위해 수집한 27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강의 계획서에 나타난 단행본 형태의 주·부교재는 모두 50종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담당 교원이 같아 교재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재를 분석한 결과, 이상욱 외(2009), 『예비교사를 위한 논리와 논술』(학지사)이 3개교, 생각공장(2009), 『논리와 비판적 사고 2.0』(글고운)과 이연숙(2002)의 『가정과교육의 이론과 실제』(신광출판사)가 2개교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되었고, 나머지 47종은 모두 한 대학에서만 교재로 사용되었다. 교재의 내용은 논리와 사고(30%), 글쓰기(24%), 글쓰기·논리적 사고 지도법(14%), 가정교과 관련 전공서(12%), 중고등교과서 및 지도서(8%), 기타(12%)로 구분할 수 있다. 또 단행본 형태가 아닌 그 밖의 교재로는, 자체 제작한 교재, 주제별 전공서적, 전공 관련 신문 등의 매체 기사, 임용시험 기출문제, 전공 관련 논문 등이 있었다.

2.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의 인식

(1)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의 만족도 조사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을 4

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강의목표(3.00)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학습평가방법(2.74)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았으나 모두 2점 이상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이 교과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이 교과목 강의에 대해 만족한 수강생들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서술형 문항응답을 살펴본 결과, 수강생들은 「가정과 논리 및 논술」을 통해 논술문 작성방법 및 원리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글을 쓰는데 자신감이 들었다」, 「통념으로 생각했던 주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가정교과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면 「임용 고사에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 「1:1 개인별 면담 및 첨삭지도 등이 필요하다」, 「교재의 부재와 방법이 아쉬웠다」, 「제시된 학습평가방법이 모호했다」 등의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각 대학별로 담당 교원의 전공, 강의운영 방법, 강의내용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러한 응답들이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에 대한 가정교육과 수강생의 일반적 의견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 교수·학습 방법이 대체로 「글쓰기」로 한정되어 있어 강의운영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가정과 내용 보다는 일반 교육학이나 사회현상과 관련되어 있어 전공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강의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이 본래 목표인 가정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논리적 사고력을 증진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Table 6. Degree of the course satisfaction

N=116

Contents	M (SD)
satisfaction of the course goal	3.00 (.590)
satisfaction of the lecture	2.86 (.645)
satisfaction of the assignments	2.82 (.705)
satisfaction of the contents	2.80 (.749)
satisfaction of the teaching method	2.79 (.755)
satisfaction of the evaluation method	2.74 (.747)

(2)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의 도움 정도와 어려운 정도

「가정과 논리 및 논술」 수강 후 도움이 된 점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수강생들은 논리적·비판적 분석능력(3.06), 가정과교육 및 교육학 관련 글쓰기 실력(3.02),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3.02)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 문제해결력(2.69)이나 가정과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2.74), 그리고 수강생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임용고사 대비(2.78)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응답을 보였다.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 수강 시 어려운 점에 대하여 수강생들은 글쓰기 연습(3.03)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잦은 토의 및 토론활동(2.76), 모호한 학습평가방법 기준(2.74), 빈번한 발표(2.37), 교수자의 피드백 부족(2.35), 과도한 과제(2.28), 어려운 강의내용(2.2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참조).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은 논리적·비판적 사고력을 키워 가정과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조사결과 본 교과목은 비교적 목표에 잘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교과교육학영역에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이 신설된 이후 임용시험 유형도 논술형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은 이 교과목에서 임용시험을 대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의 과목특성과 목표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글쓰기나 발표 및 토론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강의식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글쓰기나 발표 및 토론능력은 이 교과목의 특성상 기본사항인 동시에 미래사회를 살아나가기에 필요한 핵심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에서도 발표 및 토론 역량 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2009학년도부터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수강생들은 이 교과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이 교과목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2009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전국 11개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서 개설 및 운영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27개를 수집하여 분

Table 7. Degree of help and difficulty

N=116

Contents		M (SD)
degree of help	logical thinking and critical analytical skill	3.06 (.594)
	writing skill related to HE education and education	3.02 (.646)
	ability to express one's opinion clearly and exactly	3.02 (.618)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concept of logic and the structure and method of the essay	2.91 (.568)
	preparation for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2.78 (.699)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E education	2.74 (.674)
	ability to solve the problems specifically	2.69 (.703)
degree of difficulty	practice writing	3.03 (.639)
	frequent discussions and debate activities	2.76 (.756)
	uncertain assessment criteria	2.74 (.724)
	frequent presentations	2.37 (.719)
	lack of feedback from teachers	2.35 (.816)
	many tasks	2.28 (.732)
	difficult course contents	2.28 (.669)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수강생들이 생각하는 교육목표, 내용, 방법, 학습평가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강의계획서의 강의목표, 내용, 평가, 과제 등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별로 교과목명이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교과목명을 통해 교과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은 주로 가정교과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논리적 글쓰기나 교원 임용 시험 대비 등을 목표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학생들은 특히 임용시험 대비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임용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논술 교과목 특성상 학습평가나 과제에 있어 글쓰기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는데,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교과목에서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닌 논리적이고 비판적이며 종합적인 글쓰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강의 위주의 주입식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강의운영 방법이 요구된다.

둘째,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이 강의에 대해 평균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이 교과목은 논리적·비판적 분석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글쓰기 연습과 토의 및 토론활동, 그리고 모호한 평가기준 등이 수강을 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교과목의 특성이나 목표에 적합하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에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의 운영 실태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강의계획서를 통해 본 것이다. 강의계획서가 강의 전반에 대한 구조화된 설계라 할지라도, 강의 현장에서의 모든 것을 담기란 불가능하다. 또

한 수합된 강의계획서는 강의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개강 이후 수강생들과 협의를 통해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을 수정 및 보완한 경우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웠다. 따라서 실제 강의를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강의를 담당할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으로 표집한 가정교육과 수강생들은 일부 대학에서 편의표집 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전국 가정교육과 학생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추후에는 전국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수강생들을 전집으로 표집한 연구가 요구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강의 개선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강의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방법 등이 제시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의에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
- 교육인적자원부 (2008). 2009학년도 유 초등 및 중등교사 임용 시험의 개선방향.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
- 김홍섭·오순문·김운종·김윤기·오경자 (2008). 2008 교원자격검점 실무편람. 교육과학기술부.
- 이성호 (1987). 대학교육과정론: 쟁점과 과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인제·조현주 외 (2008).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표시교과목 「가정」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CRE 2008-6-32).
- 정미경·김갑성·류성창·김병찬·박상완·문찬수 (2010).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RR 2010-11).

- Jung, H. R. (2007). *An Analysis of Undergraduate Course Syllabus and Development of Mode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 J. (2008). An Analysis of the Content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Education Technology' Course in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25(3), 349-377.
- Lee, H. J. (2011). Issue and Direction of Logic and Writing Education in Physic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0(6), 11-19.
- Lim, D. C. (2011). Logical Writing Education through "Confucian Analects" and the Actual Lesson. *The Korean Society of Confucian Studies*, 21, 195-225
- Lyu, M. J. (2013). Exploring the Logic and Eassy Curriculum in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17(2), 369-391.
- Parkes, J., & Harris, M. B. (2002). The purposes of syllabus. *College Teaching*, 50(2), 55-61.
- Shin, Y. H. (2009). A Study of Directions Educational Objectives and Course of Study on Educational Subject Matter of Logic and Essay Writing in Vocational Teacher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the Society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5(3), 221-240.
- Yang, E. A. (2012). *An Empirical Study and Suggestion of the Class Syllabus and the Textbook for an Education on Shampoo and Trea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Gyeonggi, Korea.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의 운영 실태와 이 과목을 수강한 가정교육과 재학생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서 개설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수합하여 내용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이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116명이며, SPSS/WIN 21.0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논리 및 논술」의 강의계획서 분석 결과, 교과목의 목표는 가정교육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리적 서술 능력 함양의 목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논리적인 설득력 강화를 통한 가정과교사의 전문성 향상, 논리적 글쓰기 함양, 임용고사 준비,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글쓰기를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의 순이었다. 이 교과목에 대한 강의내용은 가정교과 세부전공 중심의 글쓰기, 일반적인 글쓰기 기초, 가정과 임용고사 준비, 논리논술 관련 이론, 가정과 교육 관련 최근의 이슈, 중등학교 현장에서의 논술교육 및 논술지도 방안의 순이었다.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강의의 학습평가방법은 대개 출석, 시험, 과제, 토론 및 발표, 수업참여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교과목의 과제는 모두 ‘글쓰기’였다.

둘째, 「가정과 논리 및 논술」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에서 강의목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학습평가방법에 대한 만족은 가장 낮았으나 모두 4점 만점에서 2점 이상으로 나타나 수강생들은 이 교과목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였다.

셋째, 가정교육과 재학생들은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이 논리적·비판적 분석 능력의 향상, 가정과교육 및 교육학 관련 글쓰기 실력의 향상,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향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교과목 수강 시 어려운 점에 대하여 글쓰기 연습이 가장 어려웠고, 다음으로 잦은 토의 및 토론활동, 모호한 학습평가방법 기준, 빈번한 발표, 교수자의 피드백 부족, 과도한 과제, 어려운 강의내용 순으로 인식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은 논리적·비판적 사고력을 키워 가정과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조사결과 본 교과목은 비교적 목표에 잘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교과교육학영역에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이 신설된 이후 임용시험 유형도 논술형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은 이 교과목에서 임용시험을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의 특성과 목표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임용시험 준비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여 이 교과목에 대한 운영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11월 14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03월 10일